

# 三陰三陽에 關한 研究

尹暢烈\*

## ABSTRACT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through study on the Three Eum and Three Yang.

1. Up to nowadays, many people confuse the Great Yang, the lesser Eum, the Great Eum, and the lesser Yang of the Sasang with the Great Yang, the lesser Yang, the Sunlight, the Great Eum, the lesser Eum, and the absolute Eum of the Three Eum and Three Yang because they are expressed with the same letters. But the former is the second specialization of the Eum and Yang, and the latter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six climate, so they cannot be the same thing, and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m.

2. Three Eum and Three Yang is the outer expression of the six climate, which is coldness, heat, dryness, humidity, wind, and the fire, and it is the conception of the formation of objects which possess SI-JUNG-JONG & BON-JUNG-MAL, and it represents one term of the status of transformation in which the life and the Yang Qi are born, grown, united, and completed.

3. The Three Eum and Three Yang is not only applied to the outer expression of the six climate, but also to the twelve channels which correspond with the twelve viscera, six differentiation of the disease of the cold, various illness, and the form of pulse.

4.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Eum and Three Yang and the twelve channels is divided into the channel of Sahwa and the channel of Jonghwa, and it also has important relationship with the physiology of the viscera.

5. The division of the six channels of disease of the cold suggested by Junggyung originates from the heat theory in Neagyung, but the six channels in the heat theory are of pathological conception, so the six channels of Junggyung includes the disease of the channels and the viscera.

6. The difference of the Pyo, Bon, Jung Qi of the Three Eum and Three Yang makes the syndrom of the disease diverse so it can be used in the diagnosis and the treatment of disease, and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on this part.

---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I. 緒論

三陰三陽은 韓醫學의 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十二經脈의 名稱, 《傷寒論》의 病證의 分型, 五運六氣에서 六氣之標, 《內經》에서 雜病의 分類, 그리고 脈象의 形態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중요하게 응용되는 三陰三陽에 대하여 그 본연의 의미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며 더 나아가 三陰三陽과 관련된 開合樞와 標氣·本氣·中氣의 이론은 韓醫學의 生理·病理·診斷·治療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三陰三陽에 대해 筆者는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四象의 太少陰陽

四象은 太陽·少陰·少陽·太陰으로 구성되어 있고 三陰三陽은 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으로 구성되어 있다. 四象과 三陰三陽은 厥陰과 陽明을 除外하고는 그 명칭이 同一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兩者사이의 관계를 대단히 혼동하고 있다. 먼저 結論을 내린다면 兩者사이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四象이란 陰陽이 二次分化하여 이루어진 萬物構成의 원리를 밝히고 있고, 三陰三陽은 本中末과 始中終을 갖춘 事物化生과 變化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수 1에서 10까지는 각각 重要的 상징적인 의미를 內包하고 있다. 이 중 1과 2는 太極과 陰陽의 원리로서 萬物의 創造와 變化의 기틀을 나타내고 있고 5와 6은 五運과 六氣의 원리

로써 中央에 位置하여 天地變化의 基本을 이루고 9와 10은 最大分裂과 統一의 原理를 나타내는 象數로서 變化의 終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三은 陰陽의 造化에 그 變化의 中心點까지를 加한 것이고 4와 8은 陰陽의 二次分化和 三次分化的 數로서 ( $2^2=4$ ,  $2^3=8$ ) 萬物構成의 原理를 나타내는 象數이다. 따라서 四象의 原理와 六氣의 原理는 그 차원을 달리하므로 단순히 太陽·少陰·少陽·太陰이라는 명칭이 同一하다고하여 兩者를 同一視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四象圖를 그려놓고 설명을 해 보고자 한다.

太陰	少陽	少陰	太陽	四象	$2^2=4$
==	=	=	=	陰陽	$2^1=2$
	--	-		太極	$2^0=1$
		●			

위의 그림을 보면 太極이 一次分化하여 陰陽이 되고, 陰陽이 二次分化하여 四象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四象에서 陽中之陽은 太陽이 되고 陽中之陰은 少陰이 되고 陰中之陽은 少陽이 되고 陰中之陰은 太陰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太陽之位는 一이고 少陰之位는 二이며 少陽之位는 三이 되고 太陰之位는 四가 되니, 太陰之位 四에 中數 五를 더하면 太陽之數 九가 나오고 少陽之位 三에 五를 더하면 少陰之數 八이 나오고 少陰之位 二에 五를 더하면 少陽之數 七이 나오고 太陽之位 一에 五를 더하면 太陰之數 六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河圖의 원리에 의해 太少陰陽의 互根之妙를 살펴본 것이다).

또 洛書의 原理로써 四象之數와 四象之位의 關係를 살펴보면 十에서 太陽之位 一을 빼면 太陽之數 九가 나오고 十에서 少陰之位 二를 빼면 少陰之數 八이 나오고 十에서 少陽之位 三을 빼면 少陽之數 七이 나오고 十에서 太陰之位 四를 빼면

1) 周易(元), 大田, 學民出版社, p.67.

太陰之數 六이 나오게 되어 四象之位와 四象之數의 相應之妙를 살펴볼 수 있다<sup>2)</sup>.

四象의 내용을 近取諸身하여 우리 人體內에 있는 五臟과 比較해 보면 《靈樞·九鍼十二原》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陽中之少陰 肺也 …… 陽中之太陽 心也 …… 陰中之少陽 肝也 …… 陰中之至陰 脾也 …… 陰中之太陰 腎也”<sup>3)</sup>

위의 原文은 四象의 原理와 정확히 附屬하고 있는 내용이다. 즉 우리는 一般的으로 橫膈膜을 中心으로 上을 陽, 下를 陰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橫膈膜의 上部에 位置한 心肺중 기능적으로 火를 주관하여 發散을 위주로 하고 갯수도 1개(陽)인 心臟은 陽中之陽인 太陽에 배속할 수 있으며, 機能的으로 金에 속하고 肅降을 主管하며 갯수도 2개(陰)인 肺는 陽中之陰인 少陰에 배속됨을 알 수 있다.

또 橫膈膜아래에 位置하는 肝·腎중, 木에 屬하고 升發을 위주로 하며 갯수도 1개(陽)인 肝은 陰中之陽인 少陽에 배속되고, 水에 屬하고 沈靜을 위주로 하며 갯수도 2개(陰)인 腎은 陰中之陰인 太陰에 배속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素問·四氣調神大論》의 “逆秋氣 則太陰不收 肺氣焦滿 逆冬氣 則少陰不藏 腎氣獨沈”<sup>4)</sup>의 太陰과 少陰은 三陰三陽이 아닌 四象的인 分類法이므로 반드시 그 위치를 서로 바꾸어야만 한다.

또한 <六節臟象論>에서도 “肺者 …… 爲陽中之太陰, 腎者 …… 爲陰中之少陰, 肝者 …… 陽中之少陽”<sup>5)</sup>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肺者 …… 爲陽中之少陰, 腎者 …… 爲陰中之太陰, 肝者 …… 陰中之少陽”이라고 고쳐야만 마땅하다. 《內經》에서 이런 誤謬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甲乙經》과 《太素》 등에서는 校訂한 바와 같게 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王冰이

《內經》을 改編할 때 그의 無知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잘못된 것으로 思料된다.

### Ⅲ. 三陰三陽의 太, 少, 明, 厥

#### 1) 三陰三陽의 一般的 概念

三陰三陽의 意味와 來源에 대해서 《黃帝內經》의 <運氣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素問·天元紀大論》에서는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三陰三陽也”<sup>6)</sup>라 하여 陰陽之氣의 편차에 따라 三陰三陽으로 나뉜다고 하였고, 《素問·陰陽類論》에서는 “一陽을 少陽, 二陽을 陽明, 三陽을 太陽이라 하고 一陰을 厥陰, 二陰을 少陰, 三陰을 太陰이라 하였으니 三陽중에서는 太陽이 陽氣가 가장 旺盛한 상태이며 三陰중에서는 厥陰이 陰氣가 약하고 少陰은 陰氣가 좀 적고 太陰은 陰氣의 作用이 가장 旺盛함을 알 수 있다.

또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陽明何謂 曰兩陽合明也”<sup>7)</sup>라 하여 陽明은 少陽과 太陽의 中間에 位置하여 陽의 作用이 少陽처럼 不及하지도 않고 太陽처럼 太過하지도 않은 中度적인 作用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또 同篇에서 “厥陰何也 曰兩陰交盡也”<sup>8)</sup>라 하여 太陰과 少陰의 陰이 다 消盡되어 장차 다시 회복하려는 準備狀態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三陰三陽은 六氣와의 關係속에서 처음으로 그 原理를

3)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9.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26.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27.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85.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85.

2) 周易(元), 大田, 學民出版社, p.67.

밝히고 있다.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熱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 所謂本也 是謂六元”<sup>9)</sup>이라 하였고, 또 “寒暑燥濕風火 天之陰陽也 三陰三陽上奉之”<sup>10)</sup>라 하였으며,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 所謂本也 本之下 中之見也 見之下 氣之標也 本標不同 氣應異象”<sup>11)</sup>라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三陰三陽은 六氣運動이 成立된 이후라야 그 개념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六氣는 天氣인 五運이 지구의 引力(坤德)에 의해 지구에 集中될 때 無根之火인 相火가 하나 더 불어나서 六氣가 되어 지구표면에 作用하여 인간을 위시한 동물과 식물의 成長變化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地氣이다. 따라서 四象에서의 太少陰陽과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며 五運의 變化에도 三陰三陽의 개념은 결코 쓸 수가 없는 것이다. 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은 本中末과 始中終을 갖추고 있으며 事物化生과 變化의 완전한 한 週期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三陰三陽은 標氣이고 風寒暑濕燥火가 本氣가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寒暑燥濕風火 天之陰陽也 三陰三陽上奉之”<sup>12)</sup>라 한 내용은 地氣인 六氣中에서도 다시 寒暑燥濕風火는 空中에서 作用하는 無形의 造化氣運으로 天之陰陽이 되고 三陰三陽은 이들 六氣의 運動에 의해 나타난 生長化收藏의 過程으로 氣候와 物象에 특징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다.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28.

따라서 <天元紀大論>의 “天以陽生陰長地以陽殺陰藏”은 초목과 동물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봄 여름에 作用하는 天의 氣運은 少陽·陽明·太陽(봄)의 과정에서는 만물을 生하고 厥陰·少陰·太陰(여름)의 과정에서 長하며, 가을 겨울에 作用하는 地의 氣運은 少陽·陽明·太陽(가을)의 과정에서는 萬物을 肅殺시키고 厥陰·少陰·太陰(겨울)의 과정에서는 沈藏시킨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十二地支와 三陰三陽配合關係를 참조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三陰三陽이라는 개념은 本體에 대한 作用의 개념으로, 根本에 대한 枝葉의 개념으로, 本氣에 대한 標氣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本氣나 本體에 대한 개념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 2) 三陰三陽과 十二地支의 配合

다음은 三陰三陽과 十二地支의 結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十二地支는 天道의 原理를 나타내는 天干과는 달리 地道의 變化를 나타내므로 六氣·三陰·三陽과 서로 配合될 수가 있는 것이다.

《素問·天元紀大論》에서 “子午之歲 上見少陰, 丑未之歲 上見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卯酉之歲 上見陽明, 辰戌之歲 上見太陽, 己亥之歲 上見厥陰”<sup>13)</sup>이라 하여

己亥-厥陰-風木  
子午-少陰-君火  
丑未-太陰-濕土  
寅申-少陽-相火  
卯酉-陽明-燥金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27.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2.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28.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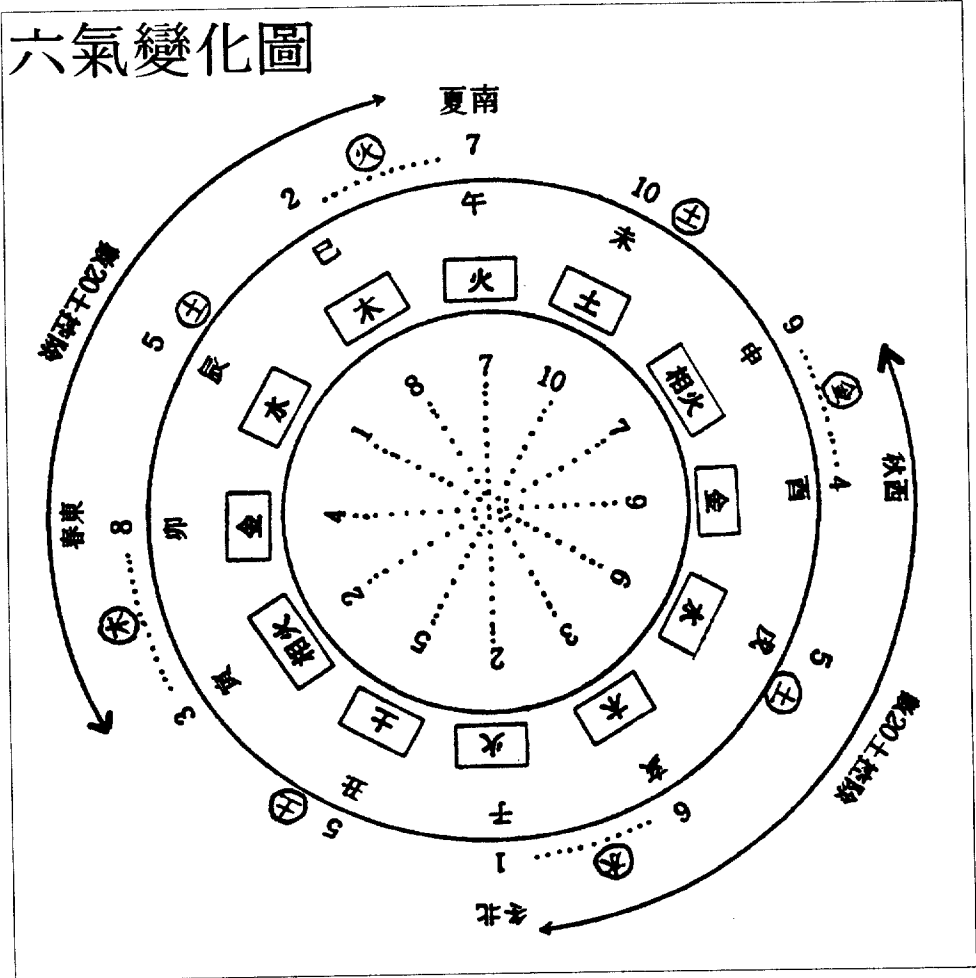
辰戌-太陽-寒水

의 관계가 성립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五運에서는 甲巳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 등으로 간단히 언급한 반면 이처럼 十二地支의 對化的變化에 三陰三陽과 風·君火·濕·相火·燥·寒의 六氣의 변화를 동시에 결합하여 사용한 이유는 天干은 事物化生の 基幹만 表示할 뿐이고, 비로소 地支에 와서 사물이 化生되므로 事物化生の 명칭인 三陰三陽의 개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六氣의 變化圖를 그려놓고 補充說明을 해보고자 한다.

巳亥를 厥陰風木이라하는 이유는 亥는 事物發生의 뿌리로 水中之木(六水속에 갇힌 木)이다. 物이 生하려고 하지만 하직 힘이 不足하여 生하지 못하는 象이다. 厥의 뜻에 '짧을꺾'字의 뜻이 있고 '꺾'字는 从厂(굴바위임)从𠂔(逆의 古字)从欠(기지개할 힘)의 象을 取하고 있으니, 즉 物이 逆出하려고 하지만 굴바위 아래와 같이 凝固가 심한 곳에 있어서 그 힘이 不及하므로 生할 수 없는 것을 厥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亥를 厥陰이라하며 亥木이 發芽하여서 점점 자라게 되면 木氣의 特徵을 잃게 되는 곳이 巳木이므로 역시 厥



陰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는 같은 厥陰이라는 名稱에 있어서 本末적으로 개념을 나누어 考察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風木이라고 하는 이유는 木氣에는 動하는 象이 있기 때문에 風木이라고 한 것이다.

子午를 少陰君火라고 한 이유는 子는 水中之火이다. 水中之火이므로 그 火가 強할 수 없으므로 少陰이라하고 猛威를 떨치지 않고 君德을 나타내므로 君火라고 하는 것이다. 午는 火로서의 實力을 充分히 갖추고 있지만 子水의 對化作用을 받고 自體內的 牽制力(方位의 7 + 變化의 7 = 14, 4가 陰金으로 收斂을 지향)으로 中道를 잃지 않으므로 子午를 少陰君火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少陰에 대한 本末의 인 고찰을 결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丑未를 太陰濕土라 한 것은 丑은 三陰의 末端이면서 事實上的 形인 寅卯辰의 基本이다. 三陰은 모두 亥子丑을 基本으로 하고 巳午未를 末로 하여 形을 만드는데 丑은 基本의 末端으로서 事實상 形이 生하는 基本點이 되므로 지극히 작으면서도 지극히 큰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太字의 象을 取하여 太陰이라고 한 것이다. 즉 丑의 濕은 形을 生하는 基本으로서의 濕이고 未의 濕은 丑에서 生한 形이 未에서 消滅될 때 나타나는 濕으로서 陽氣가 收斂되고 統一되는 過程속에서 나타나는 濕인 것으로 역시 같으면서도 다른 일면이 있는 것이다.

寅申을 少陽相火라고 하는 것은 寅은 亥子丑의 水宮의 自化作用을 지나 形을 이루는 始作이나 아직 그 힘이 약한 地中之木의 狀態이므로 陽氣의 發散이 강력하지 못하여 少陽이라고 하고 申은 未에서 生킨 濕을 이어 陽氣를 統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므로 역시 少陽이라고 한 것이다. 相火라고 한 것은 寅은 비록 地中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솟구쳐 오르고 申은 實

力은 弱化되었지만 外勢가 가장 旺盛하므로 相火라고 하는 것이다.

卯酉를 陽明燥金이라고 하는 이유는 陽明은 “兩陽合明曰陽明”이라 하였으니 一陽인 少陽과 三陽인 太陽이 合하여 明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卯는 寅에서의 少陽의 陽氣가 더욱 發展 分裂되었으므로 陽明이 되고 酉는 未에서 生한 濕이 申少陽相火의 綜合을 시작으로 酉에 와서 더욱 陽氣가 收斂되어 完全히 燥하게 되어 陽明燥金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寅申과 마찬가지로 卯는 陽氣의 發散을 위주로 陽明燥金이라 命名한 것이고 酉는 陽氣의 綜合을 위주로 陽明燥金이라고 命名한 것임을 살펴볼 수 있다.

辰戌을 太陽寒水라고 한 이유는 辰은 自化하는 木宮의 마지막 段階로 少陽에서부터 分裂되기 시작한 陽이 陽明을 거쳐 陽氣가 最大 分裂을 일으킨 곳이며 形이 완성되는 곳이다. 戌은 金宮의 마지막 단계로 申少陽에서 統一되기 시작한 陽氣가 陽明酉를 거쳐 完全히 統一된 生命力이 최대로 凝縮된 가장 큰 힘을 內在하고 있는 곳이 되므로 모두 太陽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太’字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辰太陽은 現象面에서는 가장 넓게 퍼진 陽이지만 잠재된 에너지는 가장 작고 戌太陽은 本體面에서는 가장 작은 陽이지만 장차 뻗어 갈 잠재력은 가장 큰 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寒水라고 하는 것은 水는 그 本性이 凝固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水가 辰에 이르면 그 象이 비록 가장 큰 陽처럼 보인다고 할 지라도 그 本性은 寒水 즉 凝固하는 水라는 것을 表現한 것이다<sup>14)</sup>.

위의 내용을 自化하는 四宮으로 요약해 보면 水宮에서는 三陰으로 形을 準備하고

14)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社, 1976, pp.94-98.

木宮에서는 三陽으로 發展하여 形을 이루며 火宮에서는 다시 三陰으로 形이 消滅되면서 金宮의 三陽을 통해 陽氣를 완전히 統一하게 되는 것이다.

#### IV. 三陰三陽의 活用

三陰三陽은 크게 十二經脈의 名稱, 傷寒의 六經分型, 六氣의 標氣, 病證의 分類, 雜病의 症候分類 및 脈象의 分類 등에 活用되고 있다.

##### 1) 十二經脈의 三陰三陽

###### ① 配合의 原理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三陰三陽은 本氣가 外部에 작용하여 이루어진 標氣에 대한 명칭이다. 사람의 몸은 五臟六腑가 속에 자리잡고 있고 이 氣運의 통로가 經脈으로 四肢와 百骸까지 두루 분포되어 있다. 비유하면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 자리잡고 줄기와 가지가 地上에 분포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 하겠다. 따라서 五臟六腑는 本氣에 비유할 수 있고, 여기서 뺀어 나온 十二經脈은 標氣에 해당하므로 十二經脈의 명칭으로써 三陰三陽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三陰三陽의 명칭은 經脈에만 해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五臟六腑의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手太陰肺經이라고 할 때 手太陰은 肺에서 뺀어 나온 經脈에 대한 명칭이지 肺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十二經脈에 手足과 三陰三陽을 배합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五臟의 經脈을 살펴보면 모두 三陰經을 배합하였고 다시 手三陰과 足三陰으로 나뉘고 있다.

肝의 經脈을 足厥陰이라고 한 이유는 肝이 橫膈膜下部에 위치하고 그 經脈이

足部를 흐르고 있으므로 足이라 한 것이며, 厥陰이라 한 것은 肝은 五行의 木으로 風木을 주관하므로 厥陰을 배속하여 足厥陰肝經이라고 한 것이다.

心의 經脈을 手少陰이라 한 이유는 心은 橫膈膜의 상부에 위치하고 그 經脈이 手部를 흐르므로 手라 한 것이며, 少陰이라 한 것은 心은 火中에서 君火를 주관하므로 少陰을 배속하여 手少陰心經이라고 한 것이다.

脾의 經脈을 足太陰이라 한 이유는 脾는 橫膈膜의 하부에 위치하고 그 經脈이 足部를 흐르므로 足이라 한 것이며, 太陰이라 한 것은 脾는 五行의 土로 濕을 주관하므로 太陰을 배속하여 足太陰脾經이라고 한 것이다.

이상은 三陰經중에서 司化(正化)의 경우에 해당하는 經脈을 언급한 것이다.

心包의 經脈을 手厥陰이라고 하는 이유는 心包가 橫膈膜의 상부에 위치하고 그 經脈이 手部를 흐르고 있으므로 手라 한 것이다. 厥陰이라고 한 것은 心包는 心의 外膜으로 본래 少陽相火를 주관하는 三焦와 相合하고 少陽은 厥陰과 表裏關係를 이루므로 厥陰을 배속하여 手厥陰心包經이라고 한 것이다.

腎의 經脈을 足少陰이라고 하는 이유는 腎이 橫膈膜의 하부에 위치하고 그 經脈이 足部를 흐르고 있으므로 足이라고 한 것이다. 少陰이라고 한 것은 腎은 太陽寒水를 주관하는 膀胱과 相合하고 太陽은 少陰과 表裏關係를 이루므로 少陰을 배속하여 足少陰腎經이라고 한 것이다.

肺의 經脈을 手太陰이라고 하는 이유는 肺가 橫膈膜의 상부에 위치하고 그 經脈이 手部를 흐르고 있으므로 手라고 한 것이다. 太陰이라고 한 것은 肺는 陽明燥金을 주관하는 大腸과 相合하고 陽明은 太陰과 表裏關係를 이루므로 太陰을 배속하여 手太陰肺經이라고 한 것이다.

이상은 三陰經중에서 從化(對化)의 경우에 해당하는 經脈을 언급한 것이다.

다음으로 六腑의 經脈을 살펴보면 모두 三陽經을 배합하였고 다시 手三陽과 足三陽으로 나뉘고 있다.

三焦의 經脈을 手少陽이라고 하는 이유는 三焦가 비록 上中下로 나뉘어 몸의 上下部에 위치하고 있지만 上部에 있는 心包와 相合하여 그 經脈이 手部에 흐르고 있으므로 手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靈樞·本輸篇》에서도 “三焦者 上合手少陽”<sup>15)</sup>이라고 하여 특별히 上合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少陽이라고 한 것은 三焦는 少陽相火를 주관하므로 手少陽三焦經이라고 한 것이다.

大腸의 經脈을 手陽明이라고 하는 이유는 大腸이 비록 橫膈膜아래에 位置하고 있지만 上部에 있는 肺와 相合하여 그 經脈이 手部에 흐르고 있으므로 手라고 한 것이다. 역시 이러한 이유로 《靈樞·本輸篇》에서 “大腸 上合手陽明”<sup>16)</sup>이라 하여 특별히 上合의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陽明이라고 한 것은 大腸은 肺와 表裏가 되어 陽明燥金을 주관하므로 手陽明大腸經이라고 한 것이다.

膀胱의 經脈을 足太陽이라고 하는 이유는 膀胱이 橫膈膜下部에 위치하고 그 經脈이 足部를 흐르고 있으므로 足이라 한 것이며 膀胱은 腎과 表裏가 되어 太陽寒水를 주관하므로 足太陽膀胱經이라고 한 것이다.

이상은 三陽經중에서 司化(正化)의 境遇에 해당하는 經脈을 언급한 것이다.

膽의 經脈을 足少陽이라고 한 이유는 膽이 橫膈膜下部에 위치하고 그 經脈이 足部를 흐르고 있으므로 足이라고 한 것이다. 少陽이라고 한 것은 膽은 厥陰風木을 主管하는 肝과 相合하고 厥陰은 少陽

과 表裏關係를 이루므로 少陽을 배속하여 足少陽膽經이라고 한 것이다.

胃의 經脈을 足陽明이라고 한 이유는 胃가 橫膈膜의 하부에 위치하고 그 經脈이 足部를 흐르고 있으므로 足이라고 한 것이다. 陽明이라고 한 것은 胃는 太陰濕土를 主管하는 脾와 相合하고 太陰은 陽明과 表裏關係를 이루므로 陽明을 배속하여 足陽明胃經이라고 한 것이다.

小腸의 經脈을 手太陽이라고 한 이유는 小腸이 비록 橫膈膜의 下部에 위치하고 있지만 上部에 있는 心과 相合하여 그 經脈이 手部에 흐르고 있으므로 手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靈樞·本輸篇》에서 “小腸 上合手太陽”<sup>17)</sup>이라 하여 특별히 相合의 意味를 강조하고 있다. 太陽이라고 한 것은 小腸은 少陰君火를 主管하는 心과 相合하고 少陰은 太陽과 表裏關係를 이루므로 太陽을 배속하여 手太陽小腸經이라고 한 것이다.

이상은 三陽經中에서 從化(對化)의 경우에 해당하는 經脈을 언급한 것이다.

黃元御는 《四聖心源·六氣解》에서 “天人同氣니 經有十二를 六氣統焉이니라

足厥陰은 以風木主令하니 手厥陰火也 從母化氣以爲風하고

手少陽은 以相火主令하니 足少陽木也 從子化氣以爲暑하고

手少陰은 以君火主令하니 足少陰水也 從妻化氣以爲熱하고

足太陽은 以寒水主令하니 手太陽火也 從夫化氣以爲寒하고

足太陰은 以濕土主令하니 手太陰金也 從母化氣以爲濕하고

手陽明은 以燥金主令하니 足陽明土也

15)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48.

16)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5.

17)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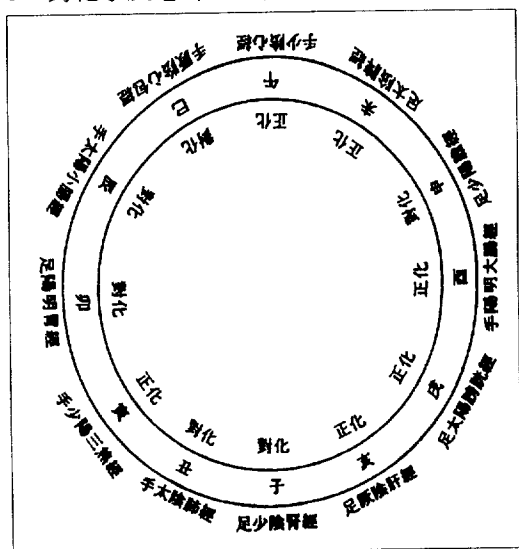


從子化氣以爲燥라”18)

하여 六氣의 從化에 의해 心包가 厥陰經이 되고, 膽이 少陽經이 되고, 腎이 少陰經이 되고, 小腸이 太陽經이 되고, 肺가 太陰經이 되고, 胃가 陽明經이 되는 이치를 밝히고 있다.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論客氣條》에서 十二支의 正化와 對化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厥陰木은 木이 亥에서 生하므로 正化於亥하고 對化於巳하며 少陰火는 午가 正得南方離位하므로 正化於午하고 對化於子하며 太陰土는 土가 中宮으로 寄於坤位西南하는데 이곳이 바로 未分이므로 正化於未하고 對化於丑하며 少陽火는 化生於寅하므로 正化於寅하고 對化於申하며 陽明金은 酉가 西方의 金分에 位置하므로 正化於酉하고 對化於卯하며 太陽水는 辰戌이 모두 土로 水는 土에서 分離될 수 없으므로 水와 土가 合德한 자리이지만 酉金이 生水하는 자리가 戌이 되므로 正化於戌하고 對化於辰한다고 하였다19).



이 내용과 앞에서 언급한 十二經脈의 正化, 對化의 내용을 결합하여 하나의 圖表를 그리면 좌측과 같다.

위의 圖表를 통해서 우리는 十二經脈에 三陰三陽을 배합한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十二支의 三陰三陽配合原理를 참고한다면 이해가 더욱 빠를 것이다.

### ② 三陰三陽과 臟腑生理

李正來는 風寒暑濕燥火의 六氣의 三陰三陽과 臟腑의 生理機能을 結合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三陰三陽과 臟腑의 配合關係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아래에 이를 소개한다.

少陽之上에 火氣治之라 한 것은 足少陽膽은 木從火化하는 火가 附하여 生하는 곳이요 手少陽三焦는 그대로 火에 該當하기 때문이며 陽明之上에 燥氣治之라 함은 足陽明胃는 火就燥의 機能에서 穀氣인 에너지를 吸收하여 木火의 發散 上升에 합류하고 手陽明大腸은 消化를 거친 후의 粗粕의 殘滓를 燥氣로 水分을 吸收 上升하여 糞便으로 化하며 氣化를 보조하는 發散 上升에 합류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燥는 濕과 반대인 것이므로 燥化가 不足하다면 水를 消하지 못하고 燥化가 太過되면 津液을 손상하는 것이라 하겠으니, 그러므로 燥에는 陰燥와 陽燥의 두가지가 있는 것이니 水가 火를 濟하지 못하는 것을 陽燥라 하여 거개의 燥症이 그러한 것이요 火가 水를 蒸消치 못하는 것을 陰燥라 하는 것이니 이 症은 간혹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太陽之上에 寒氣治之라 한 것은 足太陽膀胱은 腎水와 表裏가 되어 發散 上升한 氣化를 거친 老廢物인 津液의 殘滓인 熱氣가 없는 水를 下降排出하기 때문이며 手太陽小腸은 心火와 表裏가 되어

1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30, p.37.

19) 劉溫舒撰, 岡本爲竹編著, 運氣論奧診解,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58, pp.168-171

穀氣의 化인 에너지를 末梢까지 공급하여 下降케하려는 體陽而用陰으로 陽極生陰의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厥陰之上에 風氣治之라 하는 것은 足厥陰肝은 陽生陰退 즉 陰盡陽生處이기 때문에 陰靜의 血을 收藏하여 陽動의 氣로 化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肝은 震木에 해당하고 易에서 雷는 動함으로서 하는 것이라한 것이니 이것이 곧 風動의 이치인 것이요 그러나 이 厥陰은 中見少陽이므로 少陽春氣의 和風을 이루게 하여야 할 것이요 手厥陰心包는 位置가 膈上에 居하여 心을 護衛하는 膈中과 같이 臣使의 의의를 지녔으며 그 絡이 위로는 腦頂으로 通하고 外로는 一身으로 分布되어 血液을 往環케 하니 蓮花와 같이 橐籥이 있어 空虛하면 蓮子가 動요하고 充盈하면 心君이 安逸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곳은 陰盡陽生으로 手少陽三焦와 表裏가 되어 心陽의 氣가 上升함을 돕고 또한 陽盡陰生으로 心陰의 血이 下降함을 돕기도 하는 心臟의 活動을 보조하며 宗氣와 調和되어 風動의 意味를 지닌 것이기 때문인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少陰之上에 熱氣治之라 한 것은 足少陰腎은 陰極生陽으로 坎中에서 溫熱의 陽氣를 生하기 때문이며 手少陰心은 陽極生陰으로 離中の 溫熱의 極에서 陰氣를 生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이 坎離交構에서 氣血이 生하여 熱氣가 往來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太陰之上에 濕氣治之라 한 것은 土가 長夏에 往하는 것과 같이 金水의 陰과 木火의 陽의 사이에서 水火의 相蒸之氣로 형성되는 것이 濕인 것이니 人體의 足太陰의 脾土도 이와같이 中央에 居하여 水火相交로 腐熟이 되는 穀汁을 化하며 津液을 生케 하여 陰極生陽으로 元氣를 生成하며 陰血을 統率하는 것이요 手太陰肺는 濕土인 脾의 穀汁이 上注함을 받아 氣

를 調節交易하여 陰으로 化하는 곳이기 때문이니 이 太陰이 中見陽明이므로 濕과 燥가 알맞게 조화되어 均衡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니 이 脾胃의 均衡이 또한 전신적인 조화로 합류되는 때문이며 모든 다른 臟腑와 經脈도 또한 이와같은 것이라고 하겠다<sup>20)</sup>.

## 2) 傷寒의 三陰三陽 分型

三陰三陽은 傷寒六經의 病證을 구별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素問·熱論》에서는 비교적 계통적으로 熱病의 六經傳變規律 및 그 臨床的인 特點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仲景의 傷寒雜病論의 六經辨證의 基礎가 되었다. 傷寒의 六經은 《內經》의 六經에 근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또한 새로운 발전을 加한 것이다. 둘사이를 대조해보면 源流의 關係를 발견해낼 수가 있다. 그들 모두는 三陰三陽으로 六經을 나누고 아울러 外邪를 받아 생겨난 熱病이 人體內에서 由表入裏하고 由陽入陰 및 각 단계의 正氣와 邪氣가 투쟁하는 형세가 다름으로 因하여 나타나는 각기 다른 臨床表現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 症候의 出現은 모두 三陰三陽經脈의 循行部位와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징과도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內經·熱論篇》의 三陰三陽의 辨證과 《傷寒論》의 三陰三陽病證의 구분은 모두 三陰三陽의 經脈에 뿌리를 두고 전개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시말해 三陰三陽의 經脈理論을 바탕으로 三陰三陽의 辨證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은 巨陽인데 “巨陽者 諸陽之屬也…… 故爲諸陽主氣也”라 하고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項痛腰脊強”<sup>21)</sup>이라고 하였

20) 李正來, 太韓醫學全集(一), 서울, 第一文化社, 1989, pp.305-306.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

다. 이는 外邪가 침입해 들어오면 먼저 太陽을 침범하고 太陽經脈은 上額交巔 入絡 腦 還出下項 循肩膊夾脊 抵腰中하기 때문에 寒邪가 太陽經脈을 損傷시키면 “頭項痛 腰脊強”과 “脈浮 頭項強痛而惡寒”하는 太陽經의 症狀를 나타내게 된다. <熱論>에서 陽明에 대해서는 “二日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挾鼻絡于目 故身熱目疼而鼻乾 不得臥也”<sup>22)</sup>라 하였다. 따라서 <內經>이나 <傷寒論>을 막론하고 熱病과 관련된 六經症候의 분류는 모두 經絡, 臟腑, 氣血 등으로 기초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초를 무시해버리고 단순하게 六經을 臨床辨證의 여섯개 症候群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生動的이며 활발한 六經傳變의 規律을 고정된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실제로 응용할 때 서로 섞여있는 복잡한 病理現狀을 이해할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어 六經의 有機的인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오류를 범할 것이다.

<素問·熱論>과 <傷寒論>의 六經症候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六經名	來源	<素問·熱論>	<傷寒論>
太陽		頭項痛, 腰脊強	脈浮, 頭項強痛而惡寒, 發熱
陽明		身熱, 目痛鼻乾, 不得臥	身熱自汗, 渴飲, 便結, 潮熱譫語
少陽		胸脇痛而耳聾	口苦咽乾目眩, 胸脇苦滿, 寒熱往來
太陰		腹滿而噎乾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少陰		口燥, 舌乾而渴	脈微細但欲寐, 惡寒身踴, 手足逆冷
厥陰		煩滿而囊縮	消渴氣上撞心, 心中痛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衄, 下之利不止

<傷寒論>의 六經은 <內經·熱論>에 기초를 두고서 대단히 큰 발전을 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熱論>의 六經傳變하는 病證은 모두 熱證이고 治療에 있어서도 거의 “各通其藏脈”과 “其未滿三日者 可汗而已 其滿三日者 可泄而已” 등의 治療原則만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傷寒論>의 六經은 陰陽表裏寒熱虛實의 八綱辨證의 規律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아울러

汗·吐·下·和·溫·清·消·補 등의 治療八法을 제시하여 韓醫學의 辨證論治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였다. 傷寒六經의 各篇에 대하여 黃元御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요약하여 經絡과 臟腑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傷寒六經分篇 非皆經病也

六經之病 總統於太陽一經 其不入臟腑而但在經脈者 雖徧傳六經 而未經汗解 則必有太陽之表證 既有太陽表證 則不拘傳至何經 凡在六七日之內者 中風俱用桂枝 傷寒俱用麻黃 此太陽之經病 而實統六經之經病 不須別立六經之法也 惟陽盛亡陰而入陽明之府 陰盛亡陽而入太陰之藏 他經之裏證已作 而太陽之表邪未罷 此在太陽 則爲壞病 而在諸經 則爲本病 故於太陽 立壞病之門 而於太陽之外 又設諸經之篇

陽明篇 全言府病 陽明之經病 如葛根湯證 乃府病之連經 非第經病也 若桂枝 麻黃二證 則太陽之所統 而復述於陽明者也

三陰篇 全言藏病 太陰之桂枝 少陰之麻黃細辛 厥陰之麻黃升麻諸證 皆藏病之連經 非第經病也

少陽篇 半言藏病 半言府病 少陽居半表半裏之中 乃表裏之樞機 陰陽之門戶 陽盛則入府 陰盛則入藏 少陽之經病 如小柴胡湯證 乃藏病府病之連經 非第經病也 蓋其胸脇痞硬 是陽明 太陰俱有之證 緣其藏府脹滿 壅礙膽經降路 經府鬱迫 故心脇痞硬 而其寒熱往來 吐利並作 寒多則太陰病 熱多則陽明病 吐多則陽明病 利多則太陰病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64.

若但在少陽之經 而不內連於藏府 不至如柴胡諸證之劇也 若麻黃一證 則太陽之所統而復述於少陽者也”<sup>23)</sup>

그리고 柯韻伯은 <熱論>의 六經과 仲景의 六經과의 差異點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熱論之六經 專主經脈爲病 但有表裏之實熱 病無表裏之虛寒 但有可汗可泄之法 病無可溫可補之例 仲景之六經 是分六區地面 所談者廣 凡風寒濕熱 內傷外感 自表及裏 有寒有熱 或虛或實 無乎不包”<sup>24)</sup>

柯氏의 견해에서 <熱論>에 대한 평가는 옳다고 볼 수 있지만 仲景의 六經에 대한 평가는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傷寒의 六經辨證속에는 溫病에 대한 인식 및 이와 관련된 논술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仲景의 六經辨證에 대한 업적을 조금도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되니 이는 六經辨證이 이후 韓醫學의 辨證論治體系의 위대한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3) 六氣之標로서의 三陰三陽

#### ① 一般의 개념

六氣는 寒暑燥濕風火로 天之陰陽으로써 이것은 “燥以乾之 暑以蒸之 風以動之 濕以潤之 寒以堅之 火以溫之”<sup>25)</sup>하는 기능이 있어 이들이 지구에 작용하게 되면 “燥勝則地乾 暑勝則地濕 風勝則地動 濕勝則地泥 寒勝則地熱 火勝則地固”<sup>26)</sup>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는 지구의 공전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지구에 작용함에 근거하여 순환과 주기성을 나타내면 陰陽의 편차를 나타내는 少陽(一陽), 陽明(二陽), 太陽(三陽), 厥陰(一陰), 少陰(二陰), 太陰(三陰)의 名稱과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되었다.

또한 寒暑燥濕風火는 無形의 조화기운

이니 在天爲氣의 本氣이고 이것이 지구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氣候·物候·病候의 표현은 在地成形的 標氣가 되니 바로 三陰三陽으로써 파악되는 것이다.

標란 木末의 뜻으로 末, 現象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기서의 三陰三陽의 개념도 經脈에서 臟腑의 標氣로써 사용된 三陰三陽의 개념과 그 내용을 같이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六氣之標로서 使用되는 三陰三陽으로 主氣와 客氣의 變化를 推算하는데 主氣는 初之氣 厥陰風木, 二之氣 少陰君火, 三之氣 少陽相火, 四之氣 太陰濕土, 五之氣 陽明燥金, 終之氣 太陽寒水の 순서로 순환하는데 年年相同하니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형성되는 주기적인 변화로써 이루어지므로 地氣에 속함을 엿볼 수 있다. 客氣는 一陽인 少陽相火, 二陽인 陽明燥金, 三陽인 太陽寒水, 一陰인 厥陰風木, 二陰인 少陰君火, 三陰인 太陰濕土의 순서로 循環하는데 歲歲相異하니 日月과 五星 등의 天體運動變化에 의해서 형성된 氣候의 週期로써 天氣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寒暑燥濕風火는 六氣變化의 本이되고 三陰三陽은 六氣의 標象이 되어 氣候變化의 規律 및 氣候變化가 생물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므로 <素問·六元正氣大論>에서는 직접 “太陽之政”, “陽明之政”, “少陽之政”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該當年の 氣候·物候·病候變化의 전체적인 정황을 表示하고 있다.

#### ② 標本中氣와 氣應異象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또 六氣와 三陰三陽사이의 表裏關係를 통해 本氣 標氣 中氣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4) 柯韻伯, 傷寒來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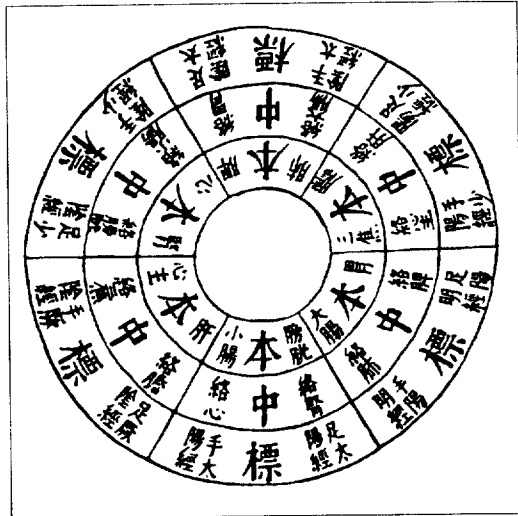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0.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0.

23)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中),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30, pp.20-21.



六經之氣 以風寒熱濕火燥爲本 三陰三陽爲標 本標之中見者爲中氣 中氣者 如少陽厥陰爲表裏 陽明太陰爲表裏 太陽少陰爲表裏 表裏相通 則彼此互爲中氣 義出六微旨大論 詳運氣類六



臟腑經絡之標本 臟腑爲本居裏 十二經爲標居表 表裏相絡者爲中氣居中 所謂相絡者 乃表裏互相維絡 如足太陽膀胱經絡于腎 足少陰腎經亦絡于膀胱也 餘放此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 陽明之上 燥氣治之 中見太陰 太陽之上 寒氣治之 中見少陰 厥陰之上 風氣治之 中見少陽 少陰之上 熱氣治之 中見太陽 太陰之上 濕氣治之 中見陽明 所謂本也 本之下 中之見也 見之下 氣之標也 本標不同 氣應異象”<sup>27)</sup>

少陽과 太陰은 本氣와 標氣의 陰陽屬性이 서로 같고 太陽과 少陰은 本氣와 標氣의 陰陽屬性이 서로 다른데, 이는 참외는

달지만 그 꼭지는 쓰며, 파의 뿌리는 희나 잎은 푸르며, 人蔘은 補하나 蘆頭는 瀉하며, 麻黃이 發汗하나 그 根節은 止汗하는 理致와 同一한 것이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六氣의 本標가 不同함에 따라 나타나는 具體的인 氣應異象에 대해

“少陽太陰 從本 少陰太陽 從本從標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 故從本者 化生於本 從標本者 有標本之化 從中者 以中氣爲化也”<sup>28)</sup>라 기술하고 있다.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32.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

여기서 말한 化는 病의 原因과 症狀을 말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治法도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張介賓의 《類經圖翼·標本中氣從化解》의 내용을 소개하여 前面에 제공한다.

“至眞要大論曰 少陽太陰 從本 少陰太陽 從本從標 陽明厥陰 不從標本 從乎中也 啓玄子註曰 少陽之本火 太陰之本濕 本末同故從本也 少陰之本熱 其標陰 太陽之本寒 其標陽 本末異 故從本從標 陽明之中太陰厥陰之中少陽 本末與中不同 故不從標本從乎中也 從本從標從中 皆以其爲化生之用也 此註殊欠明顯 卽汪石山圖註 亦隱晦難解 愚按少陽太陰從本者 以少陽本火而標陽 太陰本濕而標陰 標本同氣 故當從本 然少陽太陰亦有中氣而不言從中者 以少陽之中 厥陰木也 木火同氣 木從火化矣 故不從中也 太陰之中 陽明金也 土金相生 燥從濕化矣 故不從中也 少陰太陽從本從標者 以少陰本熱而標陰 太陽本寒而標陽 標本異氣 故或從本 或從標 而治之有先後也 然少陰太陽亦有中氣 以少陰之中 太陽水也 太陽之中 少陰火也 同于本則異于標 同于標則異于本 故皆不從中氣也 至若陽明厥陰不從標本從乎中者 以陽明之中 太陰濕土也 亦以燥從濕化矣 厥陰之中 少陽火也 亦以木從火化矣 故陽明厥陰不從標本 而從中氣也 要之五行之氣 以木遇火 則從火化 以金遇土 則從濕化 總不離于水流濕 火就燥 同氣相求之義耳 故本篇曰 從本者 化生于本 從標本者 有標本之化 從中者 以中氣 爲化也 必詳明標本化生之所自 則知所以調治之矣 故張子和標本運氣歌曰 少陽從本爲相火 太陰從本濕土坐 厥陰從中火是家 陽明從中濕是我 太陽少陰標本從 陰陽二氣相包裹 風從火斷汗之宜 燥與濕兼下之可 萬病能將火濕分 徹開軒岐無縫鎖 又其十二經水火分治歌 其義大同 皆本諸此 詳載儒門事親第十四卷

中

愚按六經從本從標從中者 盖以同類相從 歸六氣于水火 總萬病于陰陽 二者而已 此誠造化自然之道 然而經旨深邃 未易推測 自啓玄子以來 註皆未得 及戴人張子和始發明火濕二字之義 甚得其要 意謂標本相從之理 止于是矣 繼自劉宗厚而下 莫不宗之 愚亦深以爲然 獨惜其治法之有未盡善者 爲風從火斷汗之宜 燥與濕兼下之可也 此概指六氣從化 皆爲有餘 而欲以汗下二法盡之 若然 則諸病之化 豈盡屬有餘而必無不及者耶 殊失聖經本意矣 在內經之言 盖特舉陰陽所化之理 本非謂其有餘 而子和之意 則但見其有餘之爲病 而不知其不及之難化也 夫六經之氣 時有盛衰 氣有餘則化生太過 氣不及則化生不前 從其化者化之常 得其常則化生不息 亦其化者化之變 值其變則強弱爲灾 如木從火化也 火盛則木從其化 此化之太過也 陽衰則木失其化 此化之不前也 燥從濕化也 濕盛則燥從其化 此化之太過也 土衰則金失其化 逆化之不前也 五行之氣 正對俱然 此本標化生之理所必然者 化而太過者 宜抑 化而不及者 不宜培耶 治失其當 又安得謂之善哉 知乎此 則可與言化生之妙用矣”<sup>29)</sup>

위의 내용은 《儒門事親·卷十四》에 있는 <辨十二經水火分治法>과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해보면 더욱 이해에 도움이 된다.

“膽與三焦尋火治오 肝和包絡都無異라  
脾肺常將濕處求오 胃與大腸同濕治이라  
惡寒表熱小勝溫이오 惡熱表寒心腎熾라  
十二經 最端的이니 四經屬火 四經濕이  
라  
四經有熱有寒時에 攻裏解表細消息이라  
濕同寒 火同熱하니 寒熱到頭无兩說이라  
六分分來半分寒이오 寒熱中停眞浪舌이  
라

29) 張景岳,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p.140-141.

休治風 休治燥하라 治得火時風燥了라  
當解表時莫攻裏오 當攻裏時莫解表라  
表裏如或兩可攻이나 後先內外分多少라  
敢謝軒岐萬世恩인댄 爭奈醜鷄笑無小라”  
30)

4) 雜病의 分類에 應用된 三陰三陽  
《素問·陰陽別論》에서

“二陽之病 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  
其傳爲風消 其傳爲息賁者 死不治  
曰 三陽爲病 發寒熱 下爲癰腫 及爲痿厥  
臈疒 其傳爲索澤 其傳爲顏疒 曰 一陽發病  
少氣 善欬 善泄 其傳爲心掣 其傳爲隔 二  
陽一陰 發病 主驚駭 背痛 善噓 善欠 名曰  
風厥 二陰一陽 發病 善脹 心滿 善氣 三陽  
三陰 發病 爲偏枯痿易 四肢不舉 鼓一陽曰  
鉤 鼓一陰曰毛 鼓陽勝急曰紘 鼓陽至而絕  
曰石 陰陽相過曰溜”<sup>31)</sup>라 하였다.

여기서 一陽은 少陽, 二陽은 陽明, 三陽  
은 太陽, 그리고 一陰은 厥陰, 二陰은 少  
陰, 三陰은 太陰을 가리킨다.

歷代의 注家들은 거의 모두 二陽之病은  
陽明인 胃와 大腸의 納運失職이라하고, 三  
陽爲病은 太陽인 小腸과 膀胱의 病變이라  
하여 藏 또는 腑가 직접 病變을 일으키는  
것으로 注釋을 하고 있다. 臟腑와 經脈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볼 수 있  
는 일면도 있지만 三陰三陽의 經脈의 發  
病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  
는 생각이 들며 비록 手足으로 나뉘어 있  
지만 三陰三陽의 同一한 명칭을 쓰는 臟  
腑經脈은 病理的으로 함께 病變을 일으키  
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다. 어쨌든 위의 예를 들어 三陰三陽이  
疾病發生의 原因으로 應用되고 있는 것만  
은 확실히 파악할 수가 있다. 《素問·刺瘡  
篇》에서 “足太陽之瘡, 足少陽之瘡, 足陽明  
之瘡, 足太陰之瘡, 足少陰之瘡, 足厥陰之

瘡”의 症狀과 治療法을 羅列하고 또 “肺  
瘡, 心瘡, 肝瘡, 脾瘡, 腎瘡, 胃瘡”의 症狀  
과 治療法을 分辨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三陰三陽으로  
命名된 瘡은 經脈의 病이 됨을 쉽게 추측  
할 수가 있다.

또한 <刺腰痛篇>에서는 “足太陽脈 令人  
腰痛”, “少陽令人腰痛”, “陽明令人腰痛”,  
“足少陰令人腰痛”, “厥陰之脈令人腰痛” 등  
의 症狀과 治法을 기술하였고, <厥論>에  
서도 六經脈之厥狀病能을 分別하여 기술  
하고 있는데 이는 三陰三陽이 雜病의 分  
類에 널리 應用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내용  
인데 후세의 經脈辨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5) 脈象의 區別에 應用된 三陰三陽  
《素問·陰陽別論》에서 三陰三陽을 이르  
기를

“三陰이 俱搏하면 二十日夜半에 死하고  
二陰이 俱搏하면 十三日夕時에 死하고  
一陰이 俱搏하면 十日에 死하고  
三陽이 俱搏且鼓하면 三日에 死하고  
三陰三陽이 俱搏하면 心腹滿하고 發盡  
不得隱曲하면 五日에 死하고  
二陽이 俱搏하면 其病溫하고 死不治니  
不過十日에 死라”<sup>32)</sup>하였다. 여기서의 三陰  
三陽은 각각 臟腑經絡之氣가 脈象에 반영  
되는 것을 대표하는데 脈이 손가락아래에  
서 함께 搏擊할 때 전혀 柔順한 象이 없  
는 것으로 모두 胃氣가 전혀 없는 그 臟  
의 眞臟脈으로 預侯가 危篤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素問·陰陽類論》에 이르기를  
“所謂三陽者는 太陽이 爲經이니 三陽脈  
이 至手太陰하야 弦浮而不沈하면 決以度

30) 張從正撰, 張海嶺等校注, 儒門事親校註,  
鄭州,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p.715.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  
研究院, 1981, p.22.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  
研究院, 1981, p.23.

하며 察以心하여 合之陰陽之論이니라

所謂二陽者 陽明也니 至手太陰하여 弦而沈急不鼓하면 炆至以病하여 皆死하고

一陽者 少陽也니 至手太陰하여 上連人迎하여 弦急懸不絶하면 此少陽之病也니 專陰則死하고

三陰者 六經之所主也니 交於太陰하여 伏鼓不浮하면 上空志心하고

二陰이 至肺하여 其氣歸膀胱하여 外連脾胃하고

一陰이 獨至하면 經絶하여 氣浮 不鼓하고 鉤而滑하니

此六脈者 乍陰乍陽에 交屬相并하고 繆通五臟하고 合於陰陽하니 先至爲主요 後至爲客이니라”<sup>33)</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각 臟腑의 經絡之氣가 手太陰寸口에서 반영하는 病理的인 脈象을 나타내고 있다.

또 《難經·七難》에 이르기를

“少陽之至는 乍大乍小하고 乍短乍長하며

陽明之至는 浮大而短하며

太陽之至는 洪大而長하며

太陰之至는 緊大而長하며

少陰之至는 緊細而微하며

厥陰之至는 沈短而緊이라하니

此六者는 是平脈邪아 將病脈邪아”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들은 모두 正常的인 王脈으로

“冬至之後 初得甲子하면 少陽王하고

復得甲子하면 陽明王하고

復得甲子하면 太陽王하고

復得甲子하면 太陰王하고

復得甲子하면 少陰王하고

復得甲子하면 厥陰王이라”<sup>34)</sup>고 하여 人間과 自然의 密接한 相關關係속에서 不同한 季節氣候의 影響속에서 不同한 脈狀이 나타나는데 이는 陰陽之消長의 變化에 따

라 變化해 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三陰三陽은 직접 脈象의 상태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臟腑와 결합된 三陰三陽뿐만 아니라 六氣와 배합된 三陰三陽까지도 모두 채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三陰三陽은 관련된 내용의 代名詞로써 또한 널리 사용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 V. 結 論

三陰三陽에 관한 研究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四象의 太陽·少陰·少陽·太陰과 三陰三陽의 太陽·陽明·少陽·太陰·少陰·厥陰의 내용을 용어가 같다고 하여 混用하여 왔는데 陰陽의 二次分化인 四象과 六氣의 變化인 三陰三陽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므로 비교의 對象이 될 수 없고 兩者사이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2. 三陰三陽은 寒暑燥濕風火의 六氣에 대한 標氣로서 始中終과 本中末을 갖추고 있는 事物化生의 개념이며 생명과 陽氣가 發生 成長 統一 完成되는 一週期의 變化狀態를 대변하고 있다.

3. 三陰三陽은 六氣에 대한 標氣 뿐만아니라 臟腑의 本氣가 體表에 分布하는 十二經絡의 명칭과 이를 바탕으로한 傷寒의 六經分證 및 雜病과 脈象의 분류에도 응용되고 있다.

4. 三陰三陽과 十二經脈의 배합은 司化 六經과 從化六經으로 나누어지며, 역시 臟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96.

34)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4.



腑의 生理機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 仲景의 傷寒六經分類는 《素問·熱論》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熱論>의 六經은 經脈이 병든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傷寒의 六經은 經絡과 臟腑의 病變을 포괄하고 있다.

6. 三陰三陽의 標本中氣의 不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疾病의 症狀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질병의 診斷과 治療에 요긴하게 활용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參 考 文 獻

1. 李正來, 太韓醫學全集(一), 서울, 第一文化社, 1989.
2.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社, 1976.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4. 柯韻伯, 傷寒來蘇集,
5. 南京中醫學院校釋,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6. 劉溫舒撰, 岡本爲竹編著, 運氣論奧諺解,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58.
7. 張景岳,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8. 張從正撰, 張海嶠等校注, 儒門事親校註, 鄭州,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4.
9. 周易, 大田, 學民出版社,
10.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1.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30.